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면접구술시험

정시모집 일반전형 국제계열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가] 사람이 남의 부모보다 나의 부모를 더 위하고 사랑하며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런 본능적인 것을 억누르고 내 부모나 남의 부모를 똑같이 사랑한다거나, 남의 자식을 내 자식과 조금도 다름없이 사랑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너와 나를 구별 없이 사랑하거나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심정적으로는 수긍이 될지 모르지만 그대로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러한 실천은 자칫 형식적인 사랑, 위선적인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내 부모를 사랑하고서 그 절실한 마음 그대로 남의 부모도 사랑해야 하며, 내 가족을 사랑하고서 그 절실한 마음 그대로 남의 가족도 사랑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진실한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이다.

[나] We often help others in situations where there is no immediate benefit to ourselves or indeed there is no reward in the future. We are even willing to help strangers. Young children start to help strangers surprisingly early. At eighteen months, they will spontaneously* pick up dropped items and open doors or boxes to help a stranger even when they are not told to do so or given a reward. In fact, rewarding children makes them less helpful because we generally do not like having our acts of kindness reduced to something that was done for obvious gain. It is unlikely that children have been trained to help, but rather, they do so because it is in our human nature. Animals can help other members of their own species, but the observations of helping in nonhuman primates are sporadic**. Some scientists even argue that the basic principle of helping others out of good will is uniquely human.

* spontaneously: 자발적으로

** sporadic: 드문드문한

[다] 데이비드 흄은 도덕에 있어 중요한 요인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도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실천인데, 도덕적 실천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떤 대상에 대한 감정이라고 보았다.

도덕이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덕은 이성에서 유래될 수 없다. 우리가 이미 입증했듯이 이성은 홀로 그와 같은 영향력을 전혀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도덕은 어떤 행동을 일으키거나 억제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성은 전혀 힘이 없다. 따라서 도덕성의 규칙은 결코 우리 이성의 산물이 아니다. ... 도덕성은 판단된다기보다 느껴진다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 흄,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

흄에 따르면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도우려는 도덕적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동기는 그에 대한 동정이나 연민과 같은 감정이며, 이성은 실천의 동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 무분별한 선행은 오히려 무익할 때가 많다. 우리는 남을 도우려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행동으로 옮기곤 한다. 숫자와 이성을 들이대면 선행의 본질이 흐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탓에 세상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만다. 효율적인 이타주의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 세상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를 자문하고 증거와 신중한 추론으로 그 해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다. 착한 일을 할 때도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과학은 정직하고 공정한 방법을 이용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며 그 결과가 무엇이든 겸허히 수용한다. 효율적인 이타주의 역시 정직하고 공정한 방법을 사용해 어떤 선행이 이 세상에 가장 유익할지를 판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문제 1>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를 평가하시오. (60점)

<문제 2> [제시문 다]와 [제시문 라]의 관점을 비교하시오. (40점)